

『三國遺事』所載 단군 神話의 原典에 關한 한 가지 疑問

李鍾文*

<국문 초록>

단군신화가 수록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一然의 『三國遺事』와 李承休의 『帝王韻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문헌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表記上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삼국유사』의 ‘壇君’(‘神壇樹’, ‘壇樹神’)이 『제왕운기』에는 ‘檀君’(‘神檀樹’, ‘檀樹神’)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얼핏보면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군 신화해석을 크게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의미심장한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 그러니까 단군이 ‘壇君’으로 표기되어 있는 壬申本(1512년 간행) 『삼국유사』가 간행되기 이전까지 각종 문헌에 무수하게 나오는 단군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놀랍게도 『삼국유사』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코 적지 않은 문헌들에서도 단 한번의 예외조차도 없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삼국유사』의 ‘壇君’이 ‘檀君’의 오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삼국유사』의 ‘壇君’이 ‘檀君’의 오기가 아닌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壇君, 檀君, 神壇樹, 神檀樹, 壇樹神, 檀樹神, 『三國遺事』, 『帝王韻紀』, 檀君神話 原典

〈1〉

檀君神話를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 『三國遺事』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삼국유사』는 단군신화가 수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같은 맥락에서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는 각급 학교의 갖가지 교과서에 지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겹치기로 수록되었고, 거듭되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제 국민대중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그러나 『삼국유사』와 같은 시기¹⁾에 편찬된 『帝王韻紀』에도 역시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음을 아는 이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1287년 頭陀山居士 李承休에 의해서 편찬된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전대의 문헌인 <本紀>에서 부분 인용한 짤막한 내용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현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짤막한 기록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달 겨레, 단군의 자손이라는 우리 민족의 始原的 正體性과 上古史 체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삼국유사』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이념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²⁾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그 비교 대상으로 부수적이고 주변적으로 언급되어 왔을 뿐 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학교교육에서도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에 밀려 크게 소외되어 왔다. 예컨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한문고전 포함)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가운데서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7종³⁾인데, 이 7종의 교과서가 모두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를 인용하고 있고, 『제왕운기』 소재의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片言隻字의 언급조차 없다.

여기에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군신화를 순수하게 하나의 신화로 보았을 때,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의 그것에 비하여 물리적인 분량이 훨씬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역시 매우 간략하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신화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나, 단군과 고조선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필된 수많은 단군신화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지하여 왔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학교교육에서도 『삼국유사』가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 논문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단군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1)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가 편찬된 시기는 1287년이고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간혹 『삼국유사』 제 3권 塔像의 ‘迦葉佛宴坐席’ 조에 등장하는 ‘今至元十八年辛巳歲’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삼국유사』가 1281년에 편찬되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1281년은 『삼국유사』가 수록된 ‘가섭불연좌석’ 조가 쓰여진 연대이지 『삼국유사』가 편찬된 연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오히려 『삼국유사』가 아무리 빨라도 1281년 이후에 편찬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삼국유사』에 일연의 嗣法弟子인 無極이 첨가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두 대목이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가 『제왕운기』보다 먼저 편찬되었다는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 반드시 온당한지는 아직 의문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2) 최병헌(1994), 154-156면 참조.

3) 7종은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대학서림, 대한교과서(주), 정진출판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간행한 『고등학교 한문』과 (주)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고등학교 한문고전』임.

동안 널리 인용되어온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대한 엄정한 원전비평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자료적인 사정상 엄두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제왕운기』라는 파트너가 남아 있으므로 부분적이거나 비교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사이에는 당장 눈에 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이 짝막한 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점 가운데 ‘壇君과 檀君’, ‘神壇樹와 神檀樹’, ‘壇樹神과 檀樹神’에 대하여 원전비평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집필되었다.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제왕운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말까지의 단군 관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특이한 현상’은 『삼국유사』의 ‘壇君’과 ‘神壇樹’가 ‘檀君’과 ‘神檀樹’의 오기가 아닐까 의심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동시에,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럴 리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일단 덮어두는 것이 사리에 옳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학계에 보고하고, 사계의 권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다소 번거로운 대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해당 부분 전체를 원문으로 인용하여 논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이 논문에서 인용한 한문 원전은 거의 대부분 원문에 대한 비교를 통한 고증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번역문을 제시하는 통상 관례와는 달리 서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문을 제시하기로 함)

(1) 『三國遺事』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 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卽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高卽位元年 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 樂浪 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⁴⁾

* 괄호 안은 주석임(이하 같음)

4) 『三國遺事』, 紀異 卷 2, 古朝鮮(王儉朝鮮)

(2) 『帝王韻紀』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云云 謂曰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個 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 飲藥成人身 與檀樹神 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 爲王 故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⁵⁾

보다시피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문헌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설사 그 始原的인 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두 문헌의 차이점 가운데 본고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만을 골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단군의 표기: 『삼국유사』에는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음.
- (나) 단군의 아버지 표기: 『삼국유사』에는 ‘桓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檀雄’으로 표기되어 있음.
- (다) 신단수의 표기: 『삼국유사』에는 ‘神檀樹’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神檀樹’로 표기되어 있음.
- (라) 거느린 무리: 『삼국유사』에는 삼천의 무리 외에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삼천의 귀신만을 거느리고 있음.
- (마) 주관하는 일: 『삼국유사』에는 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하고 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면서 세상에서 理化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주관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바) 단군의 탄생 과정: 『삼국유사』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桓雄이 여인으로 변한 곰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왕운기』에는 단웅이 약을 먹어 손녀를 사람으로 바꾼 뒤에 檀樹神과 결혼시켜 단군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음.

문제의 핵심은 (가)와 (다)인데, 보다시피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사이에는 ‘檀君’과 ‘檀君’, ‘神檀樹’와 ‘神檀樹’, ‘檀樹’와 ‘檀樹’ 등 한자 표기상에 차이⁶⁾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원천적으로 깊은 이유가 있는 의미 심장한 차이일 수도 있고, 옛날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차식 표기⁷⁾ 과정에서 야기된 것일 수도 있으며, 베껴 쓰는 과정이나 판각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오자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檀’과 ‘檀’의 차이가 漢字의 한 邊의 차이에 해당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소한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군신화 해석에 의미심장한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다음과 같은 최병헌의 견해는 바로 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된다.

古記⁸⁾에서의 神檀樹라는 것은 神壇 옆에 서 있는 나무를 의미한 것으로서 그 의미의 중심은 神壇 자체에 있다고

5) 李承休, 『帝王韻紀』, 「東國君王開國年代」, 前朝鮮紀 註釋

6) 이 대목 이외에도 『삼국유사』의 王曆의 東明王에 대한 설명에서 동명왕을 ‘檀君之子’로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책의 高句麗 條 주석에 나오는 ‘단군기’라는 문헌도 ‘檀君記’로 표기하고 있음.

7) 가령 가야를 伽耶, 伽耶, 伽倻, 狗邪, 拘邪, 加羅, 加良, 駕洛 등으로 표기하거나, 고구려 제 2대 왕인 유리왕을 琉璃, 類利, 儒留, 累利 등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함. 단군이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호남지역에서 샤먼[巫]을 말하는 ‘당골’의 音寫라는 설과 하늘을 뜻하는 몽고어 ‘탱그리’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 音借說도 있음.

할 수 있다. 神壇은 天神이나 조상신 등에 대한 제사와 축제를 함께 거행하던 祭壇으로서 하늘님(桓因)의 자손이라고 표방하는 종족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정치적인 지배자로 등장하던 족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함께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壇君의 이름에 壇자가 붙은 것은 바로 제사장의 의미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神市는 이들 하늘님의 자손이라고 표방하는 종족이 자기네의 祭壇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한 부락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祭壇이 정치적인 중심지로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은 天神이나 조상신 등에 대한 제사와 축제를 겸한 祭儀가 부족의 통합 기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本紀⁹⁾에서는 神檀樹라고 하여 박달나무의 檀자로 표기되어 제단보다는 신이 깃들인 나무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檀樹神、檀雄、檀君의 표기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神이 깃들인 나무를 숭배하는 樹木崇拜信仰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樹木信仰의 전통은 뒷날까지 社堂木、本郷木 등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神檀樹라는 용어는 祭壇이라는 의미를 잃게 함으로서 祭儀를 중심으로 하는 神政形態의 고조선사회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¹⁰⁾.

이 한 글자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최병현의 이와 같은 견해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범주의 견해들이 넓게 유포되어 있다는 것은 ‘壇’과 ‘檀’의 차이가 단군신화의 해석을 크게 달리할 수 있을 만큼 의미심장한 차이일 수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三國遺事』의 기록을 따라 ‘神壇樹’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神壇에도 역시 나무가 있어 樹木崇拜思想이 얼마든지 추출될 수 있으므로 보기에 따라서는 ‘神檀樹’는 ‘神壇樹’ 속에 어느 정도 포괄될 수도 있다. 아울러 ‘壇君’과 ‘檀君’의 차이가 ‘神壇樹’와 ‘神檀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할 경우, ‘神壇樹’와 ‘神檀樹’의 문제는 그 자체에 국한된 고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壇君’과 ‘檀君’의 문제와 직결되고, ‘壇’과 ‘檀’의 차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군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문헌에 ‘壇’과 ‘檀’으로 표기가 갈렸다면, 그리고 이 두 문헌이 후대의 다수의 문헌에 면면하게 계승되었다면 후대의 문헌에도 이 두 글자가 어느 정도라도 비슷한 빈도로 쓰여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문헌은 대체로 후대까지 면면하게 읽혀져 왔으나 이와 같은 상식과는 크게 어긋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요컨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삼국유사』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군 관계 기록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어도 조선전기까지의 문헌에서는 ‘단군’, ‘신단수’, ‘단수’ 등의 표기에서 ‘壇’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檀’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후대 문헌에서 단군신화를 소개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삼국유사』 계통이 『제왕운기』 계통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을 정도¹¹⁾이므로 ‘壇’이 ‘檀’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법한데도 결과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8) 『三國遺事』의 단군신화에서 인용한 ‘古記’를 말함

9) 『帝王韻紀』의 단군신화에서 인용한 ‘檀君本紀’를 말함.

10) 최병현(1994), 147-148면.

11)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단군신화 중 아주 단편적인 기록을 제외하고 단군신화의 전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보면, 『帝王韻紀』 계통은 『世宗實錄地理志』에서 발견할 수 있고, 『三國遺事』 계통은 『雙梅堂篋藏錄』, 『應製詩註』, 『東國輿地勝覽』, 『浮查集』, 『東史補遺』, 『潘溪雜藁』, 『海東異蹟』, 『紀年兒覽』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존하는 고려시대 전적 가운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제외할 경우 오직 牧隱 이색의 시문에만¹²⁾ 두 번에 걸쳐 단군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두 번 모두 단군이 ‘檀君’으로 표기¹³⁾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한번은 다음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하는 이유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李牧隱 妙香山記曰 山在鵝綠水南 與遼爲界 長白山之所分也 地多香木 然則妙香之稱 以其香木之多而然也 檀君降於太白山檀木下 檀是香木 故後人遂稱其君曰檀君 名其山曰妙香也 .¹⁴⁾

목은 스스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단군 명칭의 유래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이 온당한 지는 물론 의문이다. 그러나 이 기록이 만약 목은의 기록이라면¹⁵⁾ 단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고려말기에도 단군이 ‘檀君’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단군이란 명칭의 유래가 檀木이라는 특정 나무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고려시대의 문헌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단군은 조선 건국과 동시에 주로 우리 역사의 유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각종 문헌에 갑자기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아마도 조선이란 국호의 원천적 뿌리가 단군조선 및 기자조선에서 연원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나, 본고의 입장에서 더욱더 주목되는 것은 16세기까지 간행된 각종 문헌에 출현하는 단군도 단 한번의 예외조차도 없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高麗史』에 6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군은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고, 『龍飛御天歌』, 『國朝五禮儀』, 『東國通鑑』, 『三國史節要』, 『東國輿地勝覽』의 단군들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고, 컴퓨터 검색 결과 무려 93회에 걸쳐서 단군이 출현하는 『朝鮮王朝實錄』의 경우에도 단 한번의 예외조차 없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서적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서적이므로 이들 문헌에서 단군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檀君’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官撰 文獻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저술의 경우에도 단군을 ‘檀君’으로 표기한 경우는 단 한번도 찾을 수가 없었다. 예컨대 『筆苑雜記』, 『慵齋叢話』, 『丙辰丁巳錄』, 『己卯補遺錄』 등 각종 雜記類에 등장하는 단군도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平壤誌』, 『平壤續誌』, 『東國地理志』 등 각종 인문 지리서에 등장하는 단군도 한결같이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¹⁶⁾. 뿐만 아니라 『韓國文集叢刊』 5권-32권에 수록되어 있는 16세기 후반까지 활약했던 조선전기 문인들의 개인 문집인 『三峰集』, 『陽村集』 등 무수한 문집에 등장하는 120번의 단군들 중에서도 ‘檀君’으로 표기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¹⁷⁾,

12) 淡庵 白文寶의 문집인 『淡庵先生逸集』에도 단군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단군은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담암의 문집은 아주 후대에 만들어졌고, 단군 관계 부분은 『고려사』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13) 李穡, 『牧隱詩藁』, 권3, 「西京」... 聞說朝天曾有石 檀君英爽冠群雄

14) 安鼎福, 『東史綱目』 附錄 卷下, 地理考, 太白山考.

15) 이 기록은 『牧隱文藁』 제 2권에 「香山潤筆庵記」라는 제목으로 실려있으나 인용한 부분과 다소 다른데다 어찌된 셈인지 해당 부분 가운데 일부분의 판이 짊여 있다. 사학자 안정복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인용하지는 않았을 터이므로 잠정적으로 인용하여 두었으나 재검토가 요망된다.

16) 이 조사는 주로 서영대(1994) 교수의 『단군관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나, 이 자료에도 오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고 서술에서 직접 인용한 자료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모두 원전을 찾아 확인하였으며, 원전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주석으로 ‘재인용’임을 밝혔음.

오로지 ‘檀君’만이 있을 뿐이다. 더러 누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군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영대 교수의 『檀君關係資料』를 통해서 조사해 보아도 ‘檀君’으로 통일된 정도가 조선전기의 수십 건의 자료에서 그야말로 완전 100%여서, ‘壇’과 ‘檀’ 가운데 후자만을 쓰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조선전기에도 『삼국유사』가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읽힌 것도 사실¹⁸⁾일 터인데, 어찌하여 조선전기의 그 많은 문헌 가운데 『삼국유사』의 ‘壇君’ 표기를 따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필자는 이 시대의 문인들이 보았던 『삼국유사』에는 단군과 신단수가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檀君’, ‘神檀樹’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싶다. 이와 같은 다소 생뚱한 추측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 기록처럼 『삼국유사』 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서조차도 단군이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古記 昔有天神桓因 命庶子雄 持天符三印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檀樹下 謂之神市 主人間三百六十餘事 時有一熊 常視于神 願作人身 時神遺靈藥使食 熊食之 化爲女 神因假化爲婚而生子 是爲檀君 立國號曰朝鮮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婁 禹會塗山 遣夫婁朝焉 後夫婁爲北扶餘王 老無子 祈嗣 至鯤淵 得小兒而養之 是爲金蛙 金蛙傳至帶素 而爲高句麗大神武王所滅¹⁹⁾

보다시피 『삼국유사』에는 없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인용한 글은 『제왕운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곰과 마늘이 등장하는 등 『삼국유사』의 기록과 아주 흡사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군신화는 『제왕운기』 계통이 아니라 『삼국유사』 혹은 『삼국유사』 계통임이 확실하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문헌의 이름조차도 <古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이 단군신화에는 『삼국유사』의 표기와는 달리 ‘神檀樹’가 ‘神檀樹’, ‘壇君’이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權近의 「應製詩」에 대한 權學의 註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 이것은 『韓國文集叢刊索引』 1-5에 나타난 120회의 단군을 원전을 통해서 낱낱이 다시 확인한 것인데, 직접 단군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檀木’, ‘檀箕’ 등 단군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에 포함하였음.

18)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三國遺事』 계통의 단군신화가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시대에 『三國遺事』가 적지 않게 읽혀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東國輿地勝覽』 제 54권, 寧邊大都護府, 古跡, 太伯山 條.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檀樹下 是謂桓雄天王也 桓或云檀 山 卽今平安道熙川郡妙香山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雄 願化爲人 雄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食之 虎不能忍而 雄忌三七日 得女身 無與爲婚 故每於檀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爲人 孕生子 曰檀君 與唐堯 同日而立 國號朝鮮 初都平壤 後都白 岳 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是爲東扶餘王 至禹會諸侯塗山 檀君遣子夫妻朝焉 檀君歷虞夏 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 斯達山 化爲神 今黃海道文化縣九月山也 廟至今存焉 享年一千四十八 厥後一百六十四年 己卯 箕子來封²⁰⁾

보다시피 이 글에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다 『삼국유사』에는 없는 기록들이 뒤섞여 있고, 게다가 권람 자신의 주석까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단군이 탄생하는 부분까지는 『삼국유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헌인 <古記> 계통을 참고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단군과 신단수의 ‘단’은 모두 ‘檀’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람은 이 글에서 아마도 『제왕운기』를 참작하여 ‘桓雄은 檀雄이라 하기도 한다’는 주석까지 첨부하고 있으므로, 만약 권람이 본 <古記>에 단군과 신단수가 壇君, 神壇樹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檀君, 神檀樹로 바꾸어 썼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사한 종류의 주석을 붙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주석이 없는 것을 보면 권람이 본 『삼국유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古記>에도 단군이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봄직도 한 것이다. 반드시 『삼국유사』를 보고 직접 인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와 같은 계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이 ‘檀’으로 표기된 사례는 이외에도 『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성여신의 『浮查集』, 조정의 『東史補遺』, 유형원의 『磻溪雜藁』, 洪萬宗의 『海東異蹟』, 이만운의 『紀年兒覽』 등 다수의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거니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더 주목되는 것은 雙梅堂 李詹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20) 權擘, 『應製詩註』, 「命題十首」; ‘始古開闢東夷主’에 대한 주석임.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檀君 立都阿斯達山(註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或云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 未知是否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乃移唐藏京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 〇) 21)

이 기록을 『삼국유사』에 인용된 <古記>의 기록과 비교하여 보면 여러모로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그 차이는 주로 유교적인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 신화적인 요소가 강한 기록을 대대적으로 생략한 데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밖에도 고려조에는 국왕의 이름이므로 忌諱했던 ‘高’와 ‘虎’를 ‘堯’와 ‘武’로 환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未知是否’라는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였고, 글자 상에 있어서도 약간의 사소한 출입이 있다. 그러나 『魏書』에서 출발하여 唐 「裴矩傳」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 『삼국유사』와 아무런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연이 단 주석까지도 동일하다. 같은 맥락에서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의 孤竹國에 대한 주석에서 한 글자가 떨어져 나갔으나 탈락된 글자는 ‘州’字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도 이 주석이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탈락 부분의 글자가 ‘州’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기록은 『삼국유사』와 무관하게 성립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기록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고기와 그 주석을 직접 보고 초록한 것이거나, 최소한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인용한 문헌을 보고 초록한 것이 분명한데도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군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이침(1345-1405)이 본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檀君’으로 표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볼 때 『삼국유사』 소재의 ‘檀君’은 ‘檀君’의 오자임이 분명하지 않을까도 싶어지는 것이다.

21) 李詹, 『雙梅堂篋藏集』, 제 22권, 雜著, 檀君朝鮮

〈4〉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까지의 방대한 문헌에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던 ‘壇君’이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단군에 대한 자료조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군이 ‘壇君’으로 표기된 최초의 문헌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서영대 교수가 충실하게 포괄, 망라한 「단군관계자료」에 수록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壇君 표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남구만(1629-1711)의 『藥泉集』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舊史壇君記云 有神人降太白山檀木下 國人立爲君 時唐堯戊辰歲也 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此說出於三韓古記云 而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云..... 庶子桓雄 降太白山頂神壇樹下... 每於壇樹下... 生子曰壇君... 壇君乃移於藏唐京..... 以此言之 降太白山壇樹下者 乃壇君之父 非壇君也 以其生於壇樹下 故稱壇君 非降檀木 故稱壇君也²²⁾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桓雄(檀雄)이 내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단군을 낳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단군(神人)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다시피 이 글은 남구만이 단군이 직접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는 舊史 <壇君記>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삼국유사』를 인용하여 논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핏보면 위의 글에는 ‘壇’과 ‘檀’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유사』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과 꼭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은 ‘壇’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檀’으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대목의 “壇樹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壇君’이라 일컫는 것이지 檀木에 내려왔기 때문에 ‘檀君’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남구만이 단군의 ‘단’은 ‘壇’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구만처럼 ‘壇’과 ‘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 피력한 사례를 申景濬의 다음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按三國遺事 神壇作神壇 檀君作壇君 蓋三國遺事 東方始出之史 而以神字觀之 壇壇之壇較是矣 神壇之壇 雖作檀 而檀木有二種 一 紫檀 有香 一 俗名朴達木 堅緻中材用 太白山多紫檀 故名以妙香山 在太伯山下人 以紫檀爲壇君之壇²³⁾

인용한 글은 신경준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神壇’과 ‘檀君’이 『三國遺事』에 ‘神壇 및 ’壇君’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소박하나마 그 시비를 논증한 것이다. 보다시피 뒷부분에서 일종의 절충적인 견해를 내어놓긴 했지만, 『삼국유사』가 아주 오래된 문헌이므로 신빙성이 높은 데다 ‘神’字와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檀’보다는 ‘壇’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의 견해가 지닌 타당성 여부보다도 조선전기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던 ‘壇君’과 ‘神壇’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古記云... 降於太白山頂(即太伯今妙香山也) 神壇樹下... 故每於壇樹下...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 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也)...²⁴⁾

22) 南九萬, 『藥泉集』 제 29권, 雜著, 東史辨證, 檀君

23) 申景濬, 『旅庵全書』 제 4권, 『疆界考』, 三朝鮮.

(2)案三國遺事曰 昔有天神 降于太白山頂神壇樹下 天神乃交之而生子 號曰壇君 蓋以其孕生於神壇下故也 愚意三國遺事 乃東方始出之史 檀君之檀 似宜從土 而諸史皆從木 亦不敢任改 今兩存之²⁵⁾

K C I

24) 李宜白, 『梧溪日誌集』, 檀君來歷實記(서영대(1994), 464-465쪽 재인용)

25) 홍만중, 『東國歷代總目』, 檀君朝鮮(서영대(1994), 449면 재인용)

(3) 遺事以爲降於神壇樹下 故稱壇君 通鑑及麗志以爲降於檀木下 故稱檀君 今從通鑑及麗志 26)

(1)은 李宜白의 『梧溪日誌集』에 수록된 글이고 (2)는 홍만종의 『東國歷代總目』에, 그리고 (3)은 안정복의 『東史綱目』에 수록되어 있는 글인데, 보다시피 위의 글들에서도 역시 ‘神壇樹’와 ‘壇君’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2)는 『삼국유사』의 표기가 통상적인 표기와는 달리 ‘壇君’, ‘神壇樹’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오래된 사서인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壇君’으로 쓰는 것이 옳겠지만 여러 사서들이 모두 ‘檀君’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둘 다 남겨둔다’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된다. (3)도 역시 『삼국유사』의 표기가 통상적인 표기와는 달리 ‘壇君’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자신은 통상적인 표기인 ‘檀君’을 따르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도 단군을 ‘壇君’으로 표기한 사례는 黃胤錫의 『頤齋全書』, 洪敬模의 『叢史』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여기서 우리는, 전체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빈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전기까지 한번도 등장하지 않던 ‘壇君’과 ‘神壇樹’가 조선후기에 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壇君’, ‘神壇樹’가 나타나는 문헌이 대체로 『삼국유사』를 참고하여 서술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남구만, 신경준, 안정복, 홍만종은 『삼국유사』를 참고했다는 것을 스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고, 이의백의 경우에는 인용한 <古記>의 출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삼국유사』, 혹은 『삼국유사』 계통임이 분명²⁷⁾하다. 왜냐하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문을 대대적으로 생략하여 버렸지만, 약간의 첨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삼국유사』와 일치하고 있고, 특히 주석이, 그것도 문맥상으로 보아 ‘太伯 卽今妙香山也’의 잘못임이 분명한 ‘卽太伯 今妙香山也’라는 주석까지도 『삼국유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생기는 궁금증은 다 같이 『삼국유사』를 읽었는데 ‘壇君’과 ‘神壇樹’가 조선전기 문헌에서는 일체 나타나지 않다가 산발적이거나 조선후기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서 필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선초기 학자들이 볼 수 있었던 『삼국유사』와 조선후기 학자들이 볼 수 있었던 『삼국유사』가 판본이 다른 『삼국유사』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싶다. 요컨대 이첨(1345-1405) 등 조선초기 학자들은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檀君’, ‘神檀樹’로 표기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古版本을 보아왔던 반면에 조선후기의 학자들은 그 사이에 새로 간행되면서 오자가 생겨 ‘壇君’, ‘神壇樹’로 표기된 『삼국유사』를 보았으므로 ‘壇君’, ‘神壇樹’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표기상의 차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추측이 온당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삼국유사』가 중종 7년(1512년)에 간행된 壬申本(=正德本)이므로 『삼국유사』에 오각이 생긴 것은 늦어도 임신본부터이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보다 앞의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26) 安鼎福, 『東史綱目』, 附 卷上, 考異, 檀君異稱

27) 앞에서 언급한 황윤석은 ‘檀亦作壇’이란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아마도 『삼국유사』를 보고 붙인 것으로 생각되며, 홍경모는 자신이 『삼국유사』를 보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문은 오각된 『삼국유사』가 간행된 뒤에도 ‘壇君’, ‘神壇樹’로 표기된 문헌이 뒤늦게 등장하고 출현 빈도가 이토록 낮은 까닭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다음 자료가 참고가 된다.

遺事以爲降於神壇樹下 故稱壇君 通鑑及麗志以爲降於檀木下 故稱檀君 今從通鑑及麗志²⁸⁾

K C I

28) 安鼎福, 『東史綱目』, 附 卷上, 考異, 檀君異稱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안정복의 『東史綱目』 所載의 글이다. 보다시피 그는 『삼국유사』와 『通鑑』, 『麗志』 등 전대의 문헌들 사이에 단군과 신단수에 대한 표기상의 차이를 발견했지만 전대의 문헌을 따른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저술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단군, 신단수는 모두 ‘檀君’, ‘神檀樹’를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李宜白의 경우도 『삼국유사』를 직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檀君’, ‘神檀樹’를 따르고 있으며, 남구만은 ‘壇’이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²⁹⁾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오자로 표기되어 있는 『삼국유사』가 간행되었을 때는 ‘檀君’, ‘神檀樹’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된 조선초기의 갖가지 관찬 문헌의 영향에 따라 대중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상식에 따라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壇君’, ‘神壇樹’는 좀처럼 나올 수가 없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아울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조선후기 학자의 학문적 경향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은 대체로 넓은 범주에서 실학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역사와 지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남구만은 『東史辨證』이란 역사서를, 이의백은 단군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담긴 『梧溪日誌集』을 각각 남겼으며, 『疆界考』의 저자 신경준과 『東史綱目』의 저자 안정복의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저술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홍만종의 경우도 넓은 범주에서 그런 성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대체로 과거 사실을 관습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엄정하게 따지는 학문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인용한 글이 수록된 문헌의 명칭부터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향은 그 동안 성리학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관심밖에 있었던 ‘壇君’과 ‘檀君’, ‘神壇樹’와 ‘神檀樹’ 같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삼국유사』 계통의 단군신화의 유통 상황과 관계된 문제다. 『삼국유사』는 조선초기까지 학자들에 의하여 심심찮게 읽혀진 것 같으며, 이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침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이 서서히 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불교적 신비주의 사관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는 『삼국유사』나 단군신화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으며³⁰⁾, 주로 산간의 사찰에서 전승된 것으로 생각된다³¹⁾.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조선초기까지 산발적으로 보이던 『삼국유사』의 계통의 단군신화도 좀처럼 보이지 않다가 17세기 이후에 와서 비로소 다시 그 모습을 산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삼국유사』에 오자가 생겼다면 최소한 임신본에 이미 오자가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기에 따른 표기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데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삼국유사』의 오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일단

29) 다만 신경준은 다른 부분에서도 ‘壇君’, ‘神壇樹’를 따르고 있어 이들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30) 조선의 건국과 함께 크게 증폭되었던 단군에 대한 관심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된 문집의 단군 출현 빈도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 건국 직후에 활약한 문인들의 문집에 대한 색인이 수록된 『韓國文集叢刊索引 2』에는 모두 56회나 나오던 단군 관계 기록이 2-5권에서는 각각 20회, 15회, 27회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1) 안정복, 『東史綱目』, 제 1권 上; 得保於巖穴之中 以傳後世

유보하여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후대 판본에 오자가 생겼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갖가지 자료와 앞에서 시도한 필자의 보충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케 하는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삼국유사』 古版本의 전승상황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삼국유사』에 오자가 생겼다면 늦어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壬申本(1512)에는 이미 생긴 것이 확실하고, 임신본은 교정자의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오류가 많기로 소문이 난 책³²⁾이기 때문에 오자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삼국유사』의 古本들 가운데는 임신본 이전인 ‘조선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殘本들이 더러 있고, 소장자가 비밀로 하고 있어서 학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군신화가 포함된 제 1권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제 1권을 포함한 ‘조선초기’의 고본을 필사한 것이라는 石南本 『삼국유사』가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³³⁾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군과 신단수는 ‘壇君’과 ‘神壇樹’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王曆과 高句麗 條에 나오는 단군도 모두 ‘壇君’으로 표기되어 있다.³⁴⁾

만약 이처럼 ‘조선초기’ 고본에도 ‘壇君’과 ‘神壇樹’로 표기되어 있고, 그것이 또한 오자라고 한다면 오자는 늦어도 ‘조선초기’에 이미 발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초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몰라도 ‘조선초기’의 『삼국유사』에 단군과 신단수가 이미 ‘壇君’과 ‘神壇樹’로 표기되어 있었는데도 조선전기의 그 많은 문헌에 ‘壇君’과 ‘神壇樹’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조선 후기의 몇몇 문헌에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오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오자가 아니라면 一然 당시부터 이미 ‘壇君’과 ‘神壇樹’로 쓰여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 조치라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로 장구한 시간에 걸친 그토록 많은 문헌에 ‘壇君’과 ‘神壇樹’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조선후기의 몇몇 문헌에만 나타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³⁵⁾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실사 국가적인 차원에서 ‘壇君’으로 통일하자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임신본 『삼국유사』를 간행한 사람들은 남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국가의 조치를 몰랐거나 어긴 것이 되며, 만약 鮮初本 『三國遺事』에도 ‘壇’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선초본을 간행한 사람들도 역시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선초본을 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신본을 간행한 李繼福은 국가의 공신으로서 경주부윤³⁶⁾으로 있었으므로 그가 만인이 다 알고 한치의 착오 없이 지키고 있는 국가적 조치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알면서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혹시 이계복이 실수로 국가의 조치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높고 험한 산들이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왜

32) 김상현(1993), 289쪽 참조.

33) 이상 『삼국유사』의 판본에 관한 것은 김상현(2003), 37-43쪽 참조.

34) 이 석남본 『삼국유사』는 1983년 오성사에서 晚松本 『삼국유사』를 간행할 때 그 부록으로 함께 간행하였음.

35) 조선초기 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인용할 때 <古記>를 인용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三國遺事』를 인용했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혹시 조선초기 학자들이 본 <古記>가 『三國遺事』에 인용되어 있는 <古記>가 아니라 『三國遺事』가 인용했던 바로 그 <古記>일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삼국유사』의 ‘壇君’은 처음부터 오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달려 있는 주석까지 인용한 기록들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상상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36) 임신본 『三國遺事』의 跋文에 의하면 이 책의 간행에는 李繼福 외에도 推誠定難功臣 慶尙道觀察使 安瑒, 守慶尙道都事 朴佐 등 5인이 관계한 것으로 되어 있음.

냐하면 남구만, 신경준, 안정복, 홍만중 등 조선후기의 학자들도 만인이 다 알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키고 있는 이 특별한 국가적인 조치가 있는 줄을 꿈에서도 모르고 ‘壇’과 ‘檀’의 차이와 시비를 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죄다 알고 있는 일을 영의정을 지냈던 국가의 원로 대신 남구만과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신경준, 안정복,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박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홍만중 등만 바보처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의 ‘壇君’, ‘神壇樹’, ‘壇樹神’는 ‘檀君’과 ‘神檀樹’, ‘檀樹神’의 오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으면서도, 만약 선초본 『三國遺事』에도 ‘壇君’, ‘神壇樹’, ‘壇樹神’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자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단군신화 연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이를 하나의 疑案으로 제기하여 학계의 검증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다.

투고일 : 3월 29일, 심사일 : 5월 28일, 심사완료일 : 6월 5일

K C I

【참고문헌】

- 權 寧, 『應製詩註』, 한적본.
南九萬, 『藥泉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7.
『東國輿地勝覽』, 경문사, 1987.
『晚松本 三國遺事』, 오성사, 1983.
白文寶, 『高麗名賢集』 5권 『淡庵先生逸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서영대, 『단군관계자료』, (윤이흠 의,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申景濬, 『旅庵全書』, 경인문화사, 1976.
安鼎福, 국역 『東史綱目』 민족문화추진회, 1982.
李 穡, 『高麗名賢集』 4권 『牧隱詩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李 穡, 『高麗名賢集』 4권 『牧隱文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李承休, 『高麗名賢集』 1권 『帝王韻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李 詹, 『韓國文集叢刊』 6권 『雙梅堂篋藏集』, 민족문화추진회, 1988.
一 然, 『三國遺事』, 민족문화추진회, 1982.
『韓國文集叢刊』 1-32권, 민족문화추진회, 1988.
『韓國文集叢刊索引』 1권, 민족문화추진회, 1993.
『韓國文集叢刊索引』 2권, 민족문화추진회, 1994.
『韓國文集叢刊索引』 3권, 민족문화추진회, 1995.
『韓國文集叢刊索引』 4권, 민족문화추진회, 1996.
『韓國文集叢刊索引』 5권, 민족문화추진회, 1997.
김상현(1993), 「三國遺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9-290면
김상현(2003),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譯註 三國遺事』 5, 이회문화사, 15-43면.
최병헌(1994), 「고려시대 檀君神話 傳承文獻의 檢討」,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39-157면.

<Abstract>

A Question on the Original Text of Dangun Myth in 『*Samgukyusa*(三國遺事)』

Lee Jong-mun*

Two representative literatures that record Dangun Myth are 『*Samgukyusa*』 by Ilyeon(一然) and 『*Jewangungi*(帝王韻紀)』 by Lee Seung-hyu(李承休). However, comparison of the two books shows slight difference not only in contents but also in notation. In brief, Dangun(壇君), Sindansu(神壇樹), Dansusin(壇樹神) in 『*Samgukyusa*』 are recorded as Dangun(檀君, Sindansu(神檀樹), Dansusin(檀樹神). The difference may look to be insignificant but it can be profound in meaning enough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myth. By the way, what is truly strange is that the oldest one among available versions of 『*Samgukyusa*』, which was published in 1512, used 壇君 to refer to Dangun while a large number of various types of literatures published before the version all used 檀君. What is more striking is that not a few literatures that seem to quote directly from 『*Samgukyusa*』 also use 檀君 without exception. These facts are enough to incur doubt if 壇君 in 『*Samgukyusa*』 is a misspelling of 檀君. Thus, study on Dangun Myth must start again from the task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壇君 in 『*Samgukyusa*』 is a misspelling of 檀君.

Key Words : Dangun(壇君, 檀君), Sindansu(神壇樹, 神檀樹), Dansusin(壇樹神, 檀樹神), *Samgukyusa*(三國遺事), 『*Jewangungi*(帝王韻紀)』, Original Text of Dangun Myth

*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jml413@kmu.ac.kr